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온전한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휴가로 출타중인 가정들,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늘푸른사랑방 여름공동체생활이 15일(금)~17일(일)까지 사랑방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8월14일(목)에 밀알두레학교 선생님 6명이 방문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용신 장로 · 진정행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32 호

2025년 8월 1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 사람입니다.” (히3:6)

지난 7/31(목)-8/3(주일)까지 사랑방공동체는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공동체생활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공동체생활은 진정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은혜로웠지만, 특히 저녁 코이노니아 시간은 찬양과 말씀, 삶의 나눔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코이노니아 시간에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 전체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 하셨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식구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시편의 고백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고,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들로서 각자의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갈라디아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몫의 짐을 감당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맡겨진 일들과 다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눴는데 그중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셋째 날, <누가복음 10:25-37>에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으며 ‘누가 당신의 이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이지만, 정작 저의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온 모습을 발견하며 마음에 깊은 찢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마치실 때 ‘자비를 베푸자가 이웃’이라는 율법교사의 대답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말씀은 아직도 귀에 쟁쟁하고, 굳어진 저의 마음을 치고 있습니다.

“이웃이 되어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공동예배에는 주제 말씀을 비롯하여 <빌립보서2:1-4>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겸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 안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말씀 앞에 한 없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로 결단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다시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잘 되지는 않겠지만, 힘들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 사람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겸손히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참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로 말입니다.

이번 여름공동체생활 내내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큰 평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랑방 식구들이 남남이 아닌 진정한 가족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집 안 사람들입니다.

한주간 말씀

“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
<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501, 351 / 325

기도 :

성경 : 누가복음 9장

제목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다

관찰: 예수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인자)

해석: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제자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적용: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바로 알고 따르자.

관찰: 예수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다.

해석: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다.

적용: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하나님 나라 선포를 우선순위에 두자.

관찰: 예수는 기도하시는 분이였다.

해석: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향을 잃지 말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힘을 잃지 않는 방법은 기도다.

적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방학 동안에

멋쟁이학교가 학기를 끝내면서, 멋쟁이들과 방학 계획에 대해 나는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일정이 있는 멋쟁이가 있는가 하면, 당장 편하게 침대 위에 발 뻗고 누워서 뒹굴거릴 마음이 가득한 멋쟁이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꿈꾸는 것 같은 계획서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잠이 들기 전 내일의 나에게 희망을 품는 것처럼, 실현되기 어려운 대량의 공부, 이른 기상 같은 것이 적혀있는 종이 말입니다. 물론 저라고 다를 것 없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가오가 서지 않을 것 같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이번에야말로 다를 것이다.”라고 내미는 말은 너무나도 잦은 재활용을 거쳤습니다. 내일의 ‘새로운 나’가 이상적으로 살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진정성 부족한 수표를 남발한 것이겠지요.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달라지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이전의 내가 계속해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엔 ‘새로운 나’는 없습니다. 날씨가 어때서, 시간이 늦어서, 어디에 가야 해서, 무엇을 해야 해서 등등 핑계를 대면서 오늘도 잠깐 눈 감고 죽는 척을 하는 하루살이만 있을 뿐입니다. 땀조차 흘리지 못할 계획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을 또 또 느끼면서요.

예, 그런데도 다시 한번, 기시감을 느끼면서도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운동하기, 영화 보기, 몇 가지 도전하기 등입니다. 평범하지요? 멋쟁이들과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정직하게 평가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빈 껍데기처럼 공허하진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나 다른 사람 모두가, 이번 여름 계획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리내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편 108 : 1-3
66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에베소서 1 : 7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51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12 : 32-40
302

설교자
따뜻한사랑방
정재훈 목사

“하늘의 부요함을 사십시오”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54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용신 진정행 / 봉헌위원 : 하경임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늘의 부요함을 사십시오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지 말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많은 소출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이 멈추고 맙니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던 영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는 그 근본 동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재물로 자신의 안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안정감은 많은 재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소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요함. 예수님께서 낱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종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동이고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조장희 집사

아름다운 하늘나라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참 평안의 그 나라,
내 마음에 항상 사모하니 거기 내가 거하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지만, 그 깊이와 무한성은 완전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서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평소 늘 하는 일이니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도 쉬운 일이 아님을 살아갈수록 더 느낍니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이 문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그 일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모습을, 꾸러기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에서 보게 됩니다. 학교를 오가며 여행을 따라가고 상담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선생님들의 일들을 곁에서 보기도 하고 잠깐 체험하기도 했지만,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조건 없는 헌신과 사랑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 외에는 그 사랑을 표현하거나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느 분의 이야기처럼 ‘가르치고 배운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과 삶을 의미한다는 데 깊이 동의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실 때 ‘집에 앉으나 길을 갈 때나 누우나 일어나나’ 언제든지 하라는 말씀은 말을 계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주님은 우리 하나님 이시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올바른 교육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진하여 가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진하여 가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귀한 일임을 압니다.

이 세상에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학교와 각 가정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이 이 땅에 구현되게 하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게 하시길 간절히 구해 봅니다.

꾸러기학교 황보아름 황보다운 엄마, 장한나

누군가의 향기

달이 차고 또 기울듯이 세월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보면 문득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에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숙생활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등하교 하는 편도 2시간에 비하면 양반이었지요.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 3명과 함께 한 방을 쓰던 중에, 라디에이터가 고장 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건물 자체가 50년을 넘어가도록 낡았기에,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더군요. 찬물 샤워를 지낸 다음날, 얼굴도 모르는 수리기사님에 의해 시설 정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은 대개 이런 식이었지요.

공동생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집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간단한 건수는 알아서 대처할 수 있지만, 큰 작업에 대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은, 요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일상 중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잡초를 뽑고 채소를 수확합니다. 누군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구를 교체합니다. 누군가가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널부러진 자전거를 가져다 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가 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는 섬김으로 우리의 생활은 채워져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작업들에 참여하고 나면 참 후련하고 마음에 만족감이 가득합니다. 타인을 위한 일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체감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일상 속에서 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광경을 그저 스쳐 보내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며 섬기니, 참 감동적입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곳곳까지 스며든 그 모든 지체들의 손길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향이 널리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35장, 428장

성경 : 시편 23편

말씀 :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의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하루 속히 빠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미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조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민들레 공동체를 위한 기도>

수해를 입은 민들레 공동체의 수해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잘 수급되며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휴가 중에 있는 지체들이 충분한 쉼을 얻고 힘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여름공동체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공동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가정별로 시간을 정해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쉼을 갖기도 합니다. 휴가 중에도 당직을 정해 공동체를 돌보는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쉼의 시간을 통해 마음과 몸이 잘 회복되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고 하반기생활도 행복한 공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